

## 욥기

### 세션 8: 지구의 풍경

####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8, Scene on Earth입니다.

#### 서론: 욥기 1:1-5, 우스 땅[00:22-1:26]

이제 실제 욥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많은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제 책 자체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책의 처음 다섯 구절인 지상의 장면만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스 땅에서 온 사람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가 외국인이고 모호하고 신비한 곳에서 왔으며 고대 이스라엘 청중에게 알려진 세계의 경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에돔과 관련된 시리아 사막 지역인 이 신비한 사막 지역 출신입니다. 지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 지역 출신이다. 예를 들어 테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우스와 에서를 연결하고 다시 그 지역에 사물을 배치합니다. 70인역에서 발견되는 욥기에 대한 최초의 해석은 우스를 이두매와 아라비아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책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점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 극단에서의 욥의 성격과 행동[1:26-3:58]

우리는 욥 자신의 묘사에서 모든 것이 극단으로 그려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흠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tam* 이고 그는 올곧은 *yashar* 입니다. 이들은 각각 그의 성격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면에서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된 비난이나 죄책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욥을 묘사하는 반대 단어를 찾으면 유죄라고 선언되거나 악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정죄 아래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단어를 찾을 것입니다. 욥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는 그 반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죄없는 완전함의 말이 아닙니다. 욥의 행동은 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로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에 대해 알려진 것에 근거하여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서의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비멜렉은 여호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용어는 욱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극단의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 **극단에 있는 욱의 소유[3:58-4:46]**

이제 그의 소유물과 그의 지위도 이상권에 있다. 꼭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얼마나 많은 소, 몇 마리의 낙타, 몇 마리의 양과 염소, 모든 것이 이상적인 용어로 묘사되는지에 대한 고정 관념입니다. 그는 가능한 최고의 기준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극단을 묘사했습니다. 물론 극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욕의 경건: 의식 관행[4:46-6:24]**

자,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의 경건의 문제입니다. 4절과 5절에는 그의 아들과 딸들이 분명히 생일 잔치나 일종의 연회를 위해 모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행한 이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다루는 설정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생일이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셋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잔치 기간이 지나면 욥이 그는 이른 아침에 그들 각자를 위해 번제를 드리며 생각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나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욥의 평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행을 찾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연회장에서도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연회장에서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서 목숨을 잃습니다. 욥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아이들 [6:24-7:07]**

이제 이 “그들의 마음속” 개념은 개인에게 적용할 때 사적인 생각을 의미하지만 개인으로서의 그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 모임, 연회에 관한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면의 일부인 경우 기업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기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8:17, 18:21,

시편 78:18과 같은 장소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단체 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 **하나님을 저주/축복[7:07-10:59]**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말할 때 "저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을 완곡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와 신을 나란히 두는 것은 나쁜 취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욥의 초기 장들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의 많은 상호 작용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도전자는 욥이 그의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저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는 대조적으로 욥이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대신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비록 도전자가 제안한 것과 같은 동사이지만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동사는 2장 9절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축복/저주하고 죽는 것입니다. 욥은 그 두 번째 라운드 이후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3장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문학적 모티프를 확립할 때 이러한 특정

용어 사용 외에도 이러한 단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기본 내러티브 프레임워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은 1장 10절에서 자녀와 재산으로 욥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축복은 찬양으로 성취됩니다. 도전자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 그 구전 축복의 성격은 욥의 물질적 번영을 잃게 하는 도전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주가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책의 끝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주-축복의 대립은 이 책에서 모티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 정확히 무엇이 수반됩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경솔한 맹세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권능의 권능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 그래서, 16 진수 또는 그런 종류의 것. 주문과 같은 것으로 신에 대항하는 힘의 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고 경멸하고 중상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행동이나 동기가 부패했거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거나, 하나님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난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행하지만, 그는 경멸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여전히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경멸적인 포기, 부인, 합당한 영예를 등한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욥의 의례적 행위, 소심한 하나님[10:59-14:52]**

이 전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의식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일은 자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장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욥은 연회의 맥락에서 그의 아들과 딸들이 부주의한 말을 했을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주의하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말에 대해 화를 내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순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 실제 가능성으로 간주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앗시리아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자는 분명히 그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다고 매우 걱정합니다. 이 기도는 해결책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부주의로 내 신, 내 여신, 내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지 못하는 여신에게 성스러운 곳을 밟았다면. 나의 신이나 나의 여신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참된 신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여신을 모독하는 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이나 여신 또는 그가 모르는 신이나 그가 모르는 여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실수로 행했을 수 있는 일의 전체 체크리스트를 검토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가 신들이 꽤 사소할 수 있다는 생각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알 방법이 없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성품과 행실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욥의 경건 의식에 관한 이 두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견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챌린저가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표현이다. 욥이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이 유익에 관한 것이지 의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노하시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긍정적인 특성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것은 실제로 그가 이미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의 갑옷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그리고 사실은 그의 연설에서 그것이 돌아올 것이고 그는 그러한 것들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욥기 1:1-5 요약 [14:52-15:19]**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책망할 것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갑옷에 틈이 있고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의 장면이 열리면 그것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8, Scene on Earth입니다. [15:19]